馮玉祥

의

第六十九百九千一第

The Korea Baily Nims . Seoul, Korea. Wednesday, Apr. 7th, 1926. WHY I WENT ON

THE STAGE By Sir John Martin Harvey

My childhood was inseparably woven with sights and sounds of the sea I have only to shut my eyes, and the shipyard, my first playground, comes back to me. Again I see the boats in the stocks, my father busy with his designing, and so vividly do the scenes flash before me that I seem still to catch the mingled odors from the tar and ropes blended with the sea breezes. When still quite young we moved to Quay House, a rambling, gloomy structure full of weird stairways and unmerous passages. The place created an impression on me I have not forgotten. and often those early years were haunted by a sense of unknown terrors. Then there were long hours spent in

sailing about the creeks in a small yacht my father lent us. He was a man of many occupations, but however busy he was he always found time to come up to my bedroom and wish me good-night with a few cheery words before the final tuck-up. My mother was rather an invalid in later years, and the last striking recollection of my early childhood is that of her death.

I think my childish days ended there, and any further recollections I have take me on to my school days and the years when my father expected me to show a preference for the career in life I wished to follow.

Che Chasun Iba. (The Karen Daily News) Seaul.

主体哲性微可哲部議員

一週日論戦の一展開写司
「別日論戦の一展開写司
「別日論戦の一展開写回
「別日論戦の一展開写列
「別日論戦の一展報の「別日論戦の一展報の「別日論戦の一展報の「別日論戦の一展報の「別日論戦の一展報の「別日論戦の一展報の「別日論戦の」」
「別日語の「別日語報の「別日語の「別日語報の「別日語の「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別日語報の「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別日語報の」
「別日語報の」
「別日語

工盟罷事

件の早

日本人보いこ

層前酷

分配委員出發

鋸夫盟罷

三七、三及至三七、六十二〇万至一四〇七五〇瓦七五〇瓦

三菱請負者變更叫

干餘勞働者a恐慌

元山액兒屍漂着

外立ユ

はヨハ投海 13(仁川府栗木里) 에서는 구구(將口)순사가 현장 의료장하여 검시한바 난지오개 일되고장에버린지는약이십일된 후임으로 시해는다소 부패되면 성다는바그시해유기병인은어리 대포치못 하였다더라(원산)

사내서대보당 한청장습의(漢級) 사내서대보당 한청장습의(漢級) 사비서대보당 한청장습의(漢級) 사비 시대보당 한청장습의(漢왕) 사이 의 기정(規約) 라이 교육의 문제(租繳)의 의 기정(規約改正)에 들어가 디바 기정(規約改正)에 들어가 되었다.

지 오후한시장에 환해도 으름한지 캠문通面東部里朴景潔)의집 나무가리에서 불이일어나서 맹접 보기 한 등등에 그집에 하지 당기 여덟 나는 학생원과 소박조원의 진학으로 사는 백원가장에 진학되었다는데 존비시장에 진학되었다는데 존의 시장에 진학되었다는데 존의 기관에 지하는 백원가장이며 원기의조사

지시는 자리남편 김망실과무건으로 장시간다 준후 집을 다시그와가터 자살을 하라고 아라더라(인원) 百通校生慘死 狐爆藥으로 女前世と安全中 のおいか

本世紀 (城南 로 대수색한질의 대통단부산면 (李春和) 시의아들리통이 전비리(大同郡釜山面新美里)부 전비로(大同郡釜山面新美里)부 전비로(사리) 라이어 무리히 며호잡는목 이래의 포장부와 성치단의대를 함하다 가 우명히 면호잡는목 이래의 포장부와 성치단의대를 함하다 가 우명히 면호잡는목 이래의 포장부와 성치단의대를 함하다 가 이의생각으로 그 한자이라더라(포앙)

朝夕"困

難。流離同胞

圓搾

이하수명의정사복

中國官憲去益暴虐

本 (東沙字)建物》 정인선 소사역원합화상리형선 (京仁縣 학교 발도오리고 철도가침임하여 명공(廣木)두필 (시가삼십 원)과 현금사원가량을가취깃다는데 일반의 매우공황중에있다

期か 八共謀己

(馬穆來)라는사람이쉬상 이후 그슬하에 일컫혈육 가 남꾸노호 한동석(蘇 자)라는지집아이가 있슬

٨

아이이는데 돌면히 마차는그쪽이 막순성은 술이에 취하는 지신하다 말을 물고가다가 되신하다고 말을 물고가다가 그와가리 막사 바순성은 술이에 취한 것을 불구하고 말을 물고가다가 그와가리 막아나니라(인권)

趙炳迟

の中国(口で)

司(仁川府松林里) の町の位の町八 の位息早刊 の込む学司 の対しを引

엄의 손해가될것으로 소동이 일어날것으 이라하아 시내인심성 가운대있서 하히를 이라더라(집이포)

老婆自殺未遂

★本報
★本報
★本報
★本報
★本書
本書
本書
日
大學

香料的思见 通仙田時的目

面对口口(比划)

지난사일오후다 첫시장에장의선 만성역권(京義線萬城驛前)용물에 는자살을하라고 맛던 오십여 게 의 녀자가 배웠다고하야 일시대 호갑들일으키였는데당디류승국 이제 표정 등일으키였는데당디류승국

(平南安州郡大尼面風鶴里)조청당(曹清淡)의 어머니로 무슨은 당치못한일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앗는바 남이북그러워서 그와 가리자살코자합이라드라(안주) 하건커바이고 명편사람이 인공 함이로다행이 즉지 보안했습니 생명이라다당히 이목하다보데 이 커그자에한 내용이를 받아 이 보고 나타 나타 내용이를 받아 이

各團體消息

회와 졸업상 축하회를개최하고 김상당의 역관기자 역흥이잇슨 학방일시장에 산회하면 다고 馬夫泥醉로 小兒轢傷

원인은정신병

중상임으로

사이에는 유희가 있다도(고양) 자미있는 유희가 있다도(고양) ◇敦化青年總督 시내와룡동에 ソニ도화정단회(教化青年會)에 서는 오는십일일으로 칠시반에 그회관에서 총회를 한다는데일 반히원은 만히오기를 바란다고

김청배(金聖培)의집과 김금산 (金今山)의집이로 영소될때에 이웃사람의 필사되노력으로 약 제고원인을 들어가 동안다는데 이게그원인을 들어가 불어지어 불어지지고 돌다가 불어집에 부름으로 황경하아 다리 난 첫닭으로 고와가 티된것이 라하며 손해는

실주 동오후질시부터동

한에서는 정기총

▲張彩色

학원인인 아주미상하다고(고양) 회원인인 아주미상하다고(고양) 東幕下里小火 八引

▲牛肉商്東有線▲外餅店一戸▲魚物筋 崔聚瑄 ▲同福三京 ▲煙草商 関泳米▲同福三京 ▲煙草商 関泳米

라

り含青年總會